



오대산의 주봉인 비로봉과 적멸보궁.

최연의 산 이야기 <23> 오대산 3

깨끗하고 맑은 기운 한량없다

오대산이 뛰어난 정기를 품고 있는 산이라면 적멸보궁 터는 오대산에서 최고의 명당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나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국, 즉 비룡함주형(飛龍含珠形)의 명당이다. 오대산의 주봉인 비로봉에서 아래로 뻗어 내린 산줄기는 처음엔 가늘고 연약하다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튼실해지고 기운도 왕성해진다. 그 기운이 가장 크게 넘치는 곳에 적멸보궁(寂滅寶宮)이 자리 잡고 있다.

좌청룡은 비로봉에서 북대 상왕봉을 거쳐 동대 만월산에 이르는 산줄기로 우백호는 비로봉에서 서대 장령봉을 지나 남대 기린봉으로 가는 산줄기다. 오대산의 동서남북 사대(四臺)가 모두 이곳을 호위하듯 감싸고 있다. 그리고 앞은 확 트여 술한 산봉우리들이 꽃잎처럼 펼쳐져 있다. 청룡과 백호와 안산(案山)이 높이가 적당하고 그 기세가 수려하고 장엄하니 깨끗하고 맑은 기운이 한량없이 넘친다. 이러한 곳을 풍수학에서는 삼길육수지(三吉六秀之地)라고 하는데, 이런 땅에는 재난과 흉화(凶禍)가 침입하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곳에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

적멸보궁의 주산인 비로봉은 높낮이가 거의 없는 일자형(一字形)인데 풍수학에서는 일자문성(一字文星)이라고 하며 지혜와 학문의 기운을 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늘 이곳에 머무는 모양이다. 일자문성은 오행사상으로 볼 때 토(土)에 속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훌륭한 지도자와 현인군자(賢人君子) 그리고 대도인(大道人)이 배출된다고 한다.

그리고 적멸보궁은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성지이다. 인류의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를 모셨으니 더 이상의 현인군자와 대도인이 배출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적멸보궁하면 자장율사의 5대 보궁을 주로 말하지만 금강산 건봉사, 대둔산 안심사, 지리산 법계사, 선산 도리사 등 많은 적멸보궁이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자장율사가 646년(선덕여왕 15년)에 당나라에서 청량산의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그 화현보살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관가사 1벌을 받아 귀국하였다. 신라의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왕명에 따라 당시 계율종의 본산인 풍도사를 창건하고 그 사리를 황룡사 탑과 풍도사 계단에 나누어 봉안하였다.

자장율사의 5대 보궁은 영축산 풍도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이다. 태백산 정암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가져온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였고, 정암사만 입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왜적의 노략질을 피해 풍도사의 진신사리를 나누어 봉안한 것이라고 한다.

오대산의 주봉인 비로봉이 튼실한 기운의 적멸보궁 터를 부려놓고 밑으로 더 내려와 마지막 멈춘 곳에 상원사(上院寺)가 자리 잡고 있다. 상원사를 감싸고 있는 산봉우리들은 월정사의 그것과 사뭇 다른데 월정사를 감싼 산봉우리들은 날선하고 예뻐서 생기발랄한 젊은이를 연상케 하는데 상원사를 감싼 산봉우리들은 풍후(豊厚)하고 온화하며 의연하다. 마치 세상의 온갖 고락(苦樂)을 다 겪고 큰 깨달음을 얻은 대도인의 풍모와 흡사하다. 그래서인지 장

원사에는 많은 고승대덕이 배출되었다. 근세에 들어 경허(鏡虛), 만공(滿空)과 더불어 불교를 중흥시킨 대선승(大禪僧) 한암 스님이 상원사에 주석하셨다.

한암 스님은 봉은사 조실로 있던 1925년 “내 차라리 천고(千古)에 자취를 감춘 학(鶴)이 필지언정 삼촌(三叢)에 말 잘하는 양무세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며 홀연히 오대산으로 들어와 1951년 입적할 때까지 상원사를 떠나지 않고 보문, 난암, 탄허를 비롯한 많은 제자를 길렀다.

월정사와 상원사 사이에 사고사(史庫寺)가 있는데 조선시대 왕조실록을 보관하기 위해 지었던 사고(史庫)가 있던 곳이다. 이곳은 생기가 충만하여 삼재(三災:기름, 홍수, 전쟁)로 인한 재난이 들어오지 못하는 명당이라고 한다. 이곳에 보관된 실록은 300여 년 동안 무사히 잘 보관 되었다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모두 빼앗겼다고 한다.

조선 전기에는 실록을 서울의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에 나누어 보관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에 보관하던 것만 남기고 모두 불타 없어졌다. 선조 39년(1606년) 다시 실록을 기록하여 태백산, 묘향산, 강화 마니산, 오대산에 사고를 다시 짓고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러나 인조 때 이괄의 난(1624년)과 병자호란(1636년)으로 춘추관만이 불타 없어져서 다시 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서울대학교에 보관 중이고 적상산본은 한국전쟁 때 없어졌다. 오대산본은 일본에서 거의 불타 없어지고 일부만 일본 황실에 남아 있는데 이번에 일본이 오대산본 실록을 반환한다고 하니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한 일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흡혈

모기 한 마리가 개의 주둥이 근처에서 앵앵 날며 떠나지 않는다. 더위에 지친 개가 처마 밑 그늘에서 낮잠을 청하는 한참. 모기를 쫓으려고 개가 머리를 흔든다. 모기는 슬쩍 주둥이 근처를 벗어났다. 개가 잠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다시 앵앵 달려든다. 개는 머리를 들며 입을 짝 벌렸다. 닫으며 잡아먹으려 하지만 모기의 몸뚱이에 비해 한 수 높다. 아가리를 벗어난 모기는 태연하게 또 담벼른다. 개는 졸면서도 머리를 흔드는가 하면 반사적인 동작으로 주둥이를 앞으로 내밀며 입을 벌렸다. 오트리길 멈추지 않는다.

피를 빨고야 말겠다는 모기의 의지가 강렬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피를 빨리지 않겠다는 뜻을 그만 접었는지 개는 움직이지 않는다. 주둥이 위를 빙빙 돌린 모기가 주저하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는다. 털이 나지 않은 콧잔등이다. 피를 빨리는 부위가 간지럽던지 아니면 아팠던지, 개가 잠결에 앞발로 콧잔등과 눈 밑을 함께 훑는다. 모기는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롭게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모양새로 내려앉아 다시 피를 빨다. 이번엔 길다. 개도 그만 포기했다. 너 마음대로 실컷 빨아먹고 가라며 깊은 잠 속으로 빠진다.

그게 아니었나? 너그러운 표정의 개가 슬며시 눈을 떴다. 개의 시선을 느꼈는지 아니면 먹을 만큼 먹었는지, 모기가 날아올라 마당가 수풀 속으로 간다.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눈꺼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개는 스르륵 머나먼 잠 속으로 들어간다.

축 늘어진 개의 모습이 평화롭다.

피할 수 있다면

멀찌감치 벗어나는

것도 좋고 모기장 치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처지라면

좀 나눠주며 살자고

좋게 마음먹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잠자는 개의 모습이 왜 저리 평화로운가? 개의 모습은 원래 평화로운가? 모기에게 피를 빨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일까? 배불리 피를 빨아먹은 모기를 봤기 때문일까? 세상 모든 것 다 받아들일 것 같은 개는, 저 잠자는 자세가 그런 것일까?

모기의 생존과 번영과 즐거움을 위해 선 누군가는 피를 빨려야 한다. 그것이 사람이건 개이건 또다른 동물이건 상관 없다. 피를 빨리는 누군가가 있기만 하면 된다. 피를 빨리는 동물이 없다면 모기도 있을 수 없다.

모기에게 피를 빨리는 일을 좋아하는 동물이 있을까? 필요 없는 피가 있거나 여유분의 피를 가지고 있어 나눠줘도 좋은, 넉넉한 피 주머니를 차고 있는 동물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모기에게 선블리 피를 주다가는 병을 얻어 죽을 지도 모르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선뜻 피

를 주는 동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가능성까지 담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헌혈을 하는 사람들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에게 자신의 피를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처절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오는 상관없는, 한번도 본 일이 없고 볼 일도 없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 피를 무료로 뽑아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이다. 마치 못해 한 일이라 해도 크게 다룬지 않다. 인간 본연의 모습이리라 비껴가기도 어렵다.

그런데 상대는 모기다. 인간사회에서는 모기에게 피를 나눠주라고 애기하진 않는다. 인간은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 피를 줄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모기가 이 세상에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오만한 짓이다. 지구상에서 과연 모기를 몰아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인간이 오히려 겸손하다. 몰아낼 수 없다면 언제 어디서나 피를 핏길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한다. (피를 빼는 동물은 모기만이 아니다.) 피할 수 있다면 멀찌감치 벗어나는 것도 좋고 모기장 치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처지라면 좀 나눠주며 살자고 좋게 마음먹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에 생각을 잇다보니, 피를 빨린 뒤 깊은 잠에 빠진 개의 모습이 평화롭게 다가온 이유를 알 것 같다.

■ 유승도 (시인)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한국 불교 문헌의 대총서를 읽기 쉬운 우리말로 만난다.

신라 1 인왕경소 원숙 | 백진순 옮김 | 신국판 | 800쪽 | 35000원

호국의 비법이 숨겨진 '인왕경'의 주석서이다. 원숙 스님의 말년 작품으로서, 내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 결국 외적으로 나라를 수호하는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고려 1 일승법계도원통기 균여 | 최연식 옮김 | 신국판 | 214쪽 | 12000원

한국 화엄학의 시조인 의상 스님의 '법계도'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해설서이며, 균여의 저술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문헌으로서 균여 화엄사상의 초기 면모를 여실히 보여 준다.

고려 2 원감국사집 충지 | 이상현 옮김 | 신국판 | 480쪽 | 25000원

고려 말엽에 국사로 활약한 충지 스님의 시문집으로서, 선취직轉趣의 신과 외세의 영향으로 곤궁에 빠진 사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식인의 고민을 보여 주는 시가 절창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1 작법귀감 백암 금선 | 김두재 옮김 | 신국판 | 336쪽 | 18000원

'작법귀감'이라는 제목은 불교의 제반 의식에 통용되는 의식문의 모범이요, 규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책은 기존 의식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있어 불교의례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조선 2 정도보서 백암 성총 | 김중진 옮김 | 4x6판 | 224쪽 | 12000원

극락의 찬란한 모습과 그곳에 이르는 방법 등 정도신앙에 대한 교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한편으로, 엄불수행을 통해 극락에 이르는 이야기를 다채롭게 소개하고 있다.

조선 3 백암정도찬 백암 성총 | 김중진 옮김 | 4x6판 | 154쪽 | 9000원

극락과 엄불을 노래한 정도의 노래이자 백암 성총 자신의 인생 여정과 수도의 과정에서 느꼈던 서정과 세상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담고 있는, 종교성과 문학성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조선 4 일본표해록 풍계 현정 | 김상현 옮김 | 4x6판 | 180쪽 | 10000원

천불을 조성해 경주에서 배에 싣고 해남 대운사로 가던 중 일본에 표류하여 겪은 일이 흥미 있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의 풍속과 일본인의 조선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주요 언론이 주목한 10년간의 대장정, 그 첫 결실

한국불교전서의 한글본 완역은 조선왕조실록 완역과 같은 문화적 충격을 줄 것 - 문화일보 <일본표해록>은 대마도가 조선 땅이라는 증언을 담은 흔적 없는 책이다 - 경향신문 이 책을 모두 한글로 번역하면 200자 원고지 분량만 24만 장에 달한다. 이중 80%가 한글 초역이다 - 중앙일보 향후 10년간 한글 번역본이 200~300권에 이르게 될 대장정 - 조선일보 10년 뒤 총서 완간되면 불교인식 바뀔 것 - 서울신문 우리말 옷 입은 1700년 한국불교 진면목 - 연합뉴스

동국대학교 출판부